

미 전역에서 주차장 줄이기 진행 중



▲ 상당 부분 비어있는 캘리포니아주 한 쇼핑몰 주차장.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최근 '주차장 다이어트' 가 진행 중이다.

3일 '연합뉴스' 가 웨스트트리트저널(WST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는 최근 자동차 사용률 저하로 곳곳에 남아도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자 이를 주택 공급 등 더 시급한 분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UCLA의 도시계획 전공 도널드 쇼프 교수는 미 전역에 7억~20억 개 정도의 주차면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등록된 자동차 1대당 최대 7개의 주차면이 있는 셈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차고 1개당 평균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17% 올라가고, 임대인의 4분의 3 정도는 차가 없는데도 이에 따른 비용을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이미 새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최소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폐지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 전역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인근 신축 건물에 주차장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제 철폐가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2017년 최소 주차공간 요건을 폐지한 뉴욕주 버펄로시는 3년 뒤인 2020년 시행된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시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50년 이후 처음이었다.

100년 전 사라졌던 호수가 다시 생겼다

최근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설과 폭풍우 등이상기후로 100년 전 사라졌던 호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 가 영국 스카이방송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중간에 위치한 툼레이 분지는 한때 호수였으나 100년 전 물이 빠진 후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와 우유, 과일 등의 미국내 주요 산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미 서부 지역에 폭우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한 세기 동안 메말랐던 이 일대엔 요즘 물이 다시 들어차 바다를 방불케 하고 있다.

계속된 강우로 한때 호수였던 유역이 다시 물로 채워지는가 하면, 홍수로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농장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기록적인 폭설로 근처 산악 지대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 것도 시름을 키우고 있다. 눈이 녹아내리면 산 아래 마을은 수개월 동안 홍수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겨울 폭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툼레이 지역의 한 농장. 사진=phys.org

툼레이 유역 상수지구의 책임자였던 매트 헐리 씨는 "15m가 넘는 눈이 산에 쌓여있다. 이 눈이 얼마나 빨리 녹아내릴지 모른다."며 더 큰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와이주, 자연보호 명분 섬 입장료 부과 추진

하와이주가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이 AP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하와이주 의회는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증을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이 숲·공원·산책로·등산로, 또는 하와이주가 소유한 기타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허가증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입도 수수료' 를 부과하는 셈이다.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계도 기간을 거치며,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하와이에선 일부 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립공원과 숲길 등의 입장이 무료다.



▲ 하와이주가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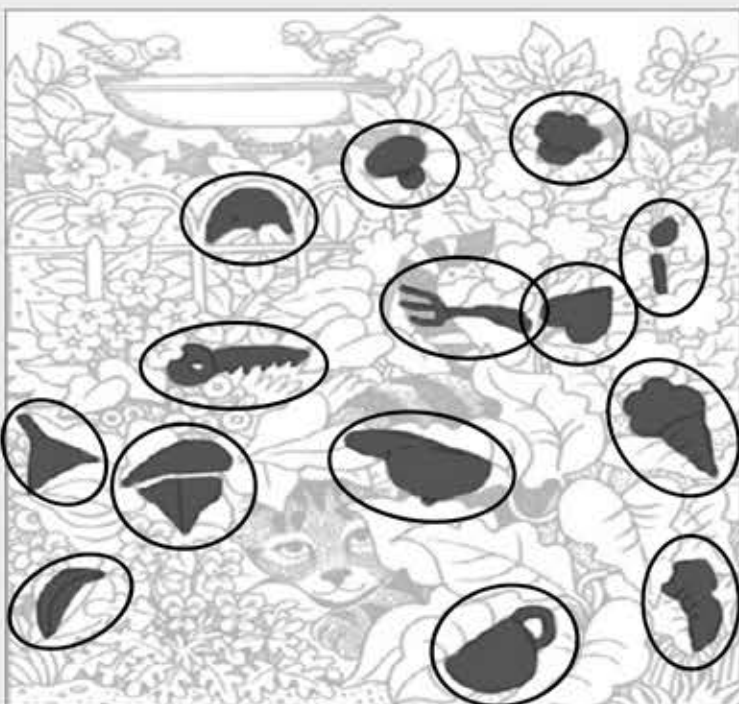
주의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팔라우 등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유사한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 의회가 입법에 나선 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들이 찾는 지역이 특정 관광지예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광객이 자신도 모른 채 옮긴

공팡이균으로 인한 천연림 훼손과 보트 및 스노클링으로 인한 산호 파괴, 돌고래·거북이 등 야생동물에 대한 괴롭힘도 문제가 됐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하와이섬에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50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	구	경		2	이	3	기	심			
	세						숙		4	승 선	
5	주	6	목		7	일	사	8	천 리		
		9	청	10	해 진			부			
				결			11	인 당	12	수	
		13	구 사	14	일 생			15	배	16	신
17	대	박			자						바
			18	브 리	핑			19	보 람		